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송 영 / 찬 양 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12.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1-4상).

여호와와 울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7-10.)

※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88장

대표기도 / (1부) 박영미 집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출애굽기 15:22~27**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반전의 은혜”**

(The Grace of Reversal: Turning Bitter Water into Sweet) / 전종남 목사

찬 송 / 301장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노래 / 620장 (1절)

※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도대 출범예배>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99장, 500장

기 도 / 전도대 부장 김영덕B 집사

성경봉독 / **눅15:3~7** 회계 문미경 집사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잃은 양을 찾으라!”**

/ 전종남 목사

특 송 / 전도대 일동

사역보고 / 전도대 총무 우말순 권사

■ 저녁 7시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428장, 455장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6:1~2

말 씬 / **“믿는 종들에 대한 권면”**

/ 전종남 목사

(Exhortations to Believing Servants)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마태복음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3월 1부	2부
윤진태 안수집사	이상혁 장로	김영덕A 집사	안내	문미경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헌금	강현주 최영종 김영화 우말순 전복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명순 김춘예 김춘자 심상현 장송자 최승태(김상금)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순천(연유희) 문상필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승태(김상금) 홍우표(윤명란) 무명1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부활절계란: 박삼강자 가정
선교헌금	김경희 김홍엽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최승태(김상금)
구제헌금	*구역헌금: 1, 4, 9구역.
교육헌금	김영덕B 박주해
주일헌금	김영화 *부서헌금: 유초-중고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 요약 (3.15.)

벤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창28:10~22)

전 종 남 목사

인생에는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곳, 눈물로 부르짖던 기도의 골방 등,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는, 우리 인생의 ‘벤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역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벤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벤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 절망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10절).

야곱은 형 에서를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자녀였지만, 현실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지금 삶이 지치고 외롭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벤엘에 찾아와 계십니다.

2. 언약으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13절).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언약(言約)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지금 누워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지경의 복’.

둘째, 자손이 티끌같이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자손의 복’.

셋째,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주시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15절).

이 약속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가장 견고한 힘이 됩니다.

3.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16절).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루스(아몬드 나무)’에서 ‘벤엘(하나님의 집)’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더 이상 고독한 광야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됩니다. 이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의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벤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으로 붙드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벤엘의 은혜>를 회복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